

尹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보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MZ세대 의견 청취해 대국민 소통 보완 검토하라”

정부, 대국민 여론조사 계획...결과 따라 변화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선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지도부 만찬 ‘이철규 특별 참석’ 주목

내년 총선 공천 앞두고 당정간 ‘주파수 맞추기’ 관측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지난 13일 첫 만찬에서 신임 당직자 중 유일하게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도 당정간 ‘주파수 맞추기’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타가 공인하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이 총선 공천관리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임명 당일 윤 대통령과 선출직 지도부 간 상견례 자리에서 ‘특별 참석’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만찬 하루 뒤인 14일 당내에서는 애초 대상 명단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만찬에 참

석한 의미와, 총선을 앞두고 그가 맡을 당정 간 교역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일례 선출직 최고위원들만 가는 게 맞는데 이 의원이 워낙 대통령과 가깝고 개인적으로도 자주 소통하니 그 과정에서 같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소위 가교와 소통의 달인”이라며 “(윤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 일을 같이했었고 대선 때부터 지금 거리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신임이 두렵다”라고 전했다. 장재찬 청년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당 안팎살림을 도맡아 하는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배석이 된 거 같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당의 자금과 조직을 총괄하며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이번 전당대회 초반 친윤 핵심인 장재찬 의원이 상대 후보측 공격에 ‘백의중군’을 선언하며 말지 않겠다고 록 잡아 언급한 요격이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에도 박성민(전략기획)·배현진(조직) 등 친윤계 출신 의원들이 배치됐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에 이어 내년 총선 공천에도 벌써 ‘윤심’ (尹心·윤 대통령 의중)의 직통 창구가 열린 셈이 되면서 당이 윤 대통령의 ‘진정 체제’를 넘어서 ‘직할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한뜻으로 함께 일해 나가자”, “한마음으로 호흡을 맞춰 일하자” 등을 당부했다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전했다. /연합뉴스

“한·일 두 정상, 16일 정상회담 뒤 만찬”

日 요미우리신문 보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후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플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일본 정부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희망을 반영해 렌가테이를 2차 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소수의 인원이 참석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예상했다. 요미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만찬 장소는 경비 체제 등을 고려

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이어 17일에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일한의원연맹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맞춰 약 10년간 재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의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와 교류 활성화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연합뉴스

심야·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

엄태영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당원) 의원은 14일 심야나 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와 방학 중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 이내로 달리 제한하고,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

했다. 이는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 취지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정미 정의당 대표 향한 지지층 폭언 사과”

송갑석 의원, SNS 메시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사죄배상 촉구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층이 이정미 당 대표에게 폭언과 야유를 한 것을 두고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저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실시한 ‘윤석열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하느라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 당시 일부 지지자들이 이정미 대표에게 야유를 보냈을 때도 사실은 참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이정미 대표에게 미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주일 새 반복된 부적절한 일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규탄하고 무효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가한 ‘범국민대회’라며 “그 목적과 상관없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발언자를 모욕한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 모두를 모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분들이 우리 당원이라면, 지지하는 민주당에게도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td> </tr> <tr> <td>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td> </tr> <tr> <td>정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able>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정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p>(보3천, 월수익 380만)</p>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정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010-2614-9801</p>	<p>010-6670-9800</p>									